

‘先취업 後학습’ 활성화... 대학평생교육에 234억 지원



대학가 소식

초·중학생들이 지난 11일 한성대 학술정보관이 마련한 ‘피지컬코딩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한성대

한성대 초·중학생에 코딩 교육

한성대학교는 학술정보관에서 11일~14일까지 4일간 지역사회 초·중학생 34명을 대상으로 ‘피지컬코딩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코딩 기술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 체험으로 구성된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해 코딩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권혁제 교수(사회과학부 금융·데이터 분석트랙)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딩 수업이 진행되고, 한성대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강순애 학술정보관장은 “한성대 학술정보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도서관 개방,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공공 기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 회화과 81학번 동문인 신영진 한남대 회화과 교수(오른쪽)가 ‘2018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 협력 부분 상을 받고 있다. /세종대

세종대 신영진 동문 ‘공군을 빛낸 인물’ 협력상

세종대학교는 회화과 81학번 동문인 신영진 한남대 회화과 교수가 지난달 30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2018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 협력 부분 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교수는 공군 장병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 노백린 장군과 권기욱 애국지사의 초상화를 선보였다.

노백린 장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현재 국방부장관)을 역임하면서 한민비행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권기욱 애국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항일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로 불린다. 그는 독립 후 대한민국 공군 창설과 발전에 기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 애국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이왕기 공군참모총장은 “역사기록화 제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공군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교육부,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 성인학습자용 단과대·학과 설치 일반대학 20교 내외 등 26곳 선정 2020학년도 대입부터 학습자 모집

학령인구 감소와 성인들의 계속 교육 수요 증가에 맞춰 대학들의 평생교육체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대학에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위과정과 전용 단과대·학부·학과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다.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해, 고교 졸업후 우선 취업한 뒤 재직 중 대학에 입학하는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자기 개발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학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전문대 포함 26개 대학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대학 20교 내외, 전문대학 6교 내외 등 총 26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올해 23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일반대학 운영모델 예시〉

/자료=교육부

단과대학형	-복수의 성인학습자 대상 학과로 별도의 단과대학 구성 -단과대학 내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학부형	-복수의 성인학습자 대상 전공으로 별도 학부 구성 -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협업체계구축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학과형	-기존 단과대학 내에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 개설 -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체계 구축
컨소시엄형	-복수의 대학이 연계해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공동 개발 및 운영 -공동(복수) 학위 수여 가능 -학점 교류 및 공동 성인학습자 지원 인프라 구축(대학별 전담 지원체계 구축)

지역별 평생교육 거점을 만들기 위해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강원·대경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 3~7개교를, 전문대도 권역별 1~2교를 사업수행 대학으로 선정한다.

이번 사업에는 기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평생직업교육 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이나 2017~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대학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학이나 기관평가 불인증·유예 대학 등은 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기존 1년 단위의 단년도 사업에서 올해부터는 4년(2+2년)의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되고,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지원금이 가감되거나, 2년차 중간평가 결과 사업 성과가 매우 미진한 대학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을 필수로 운영해야 하고, 평생교육 운영 모형과 운영 규모(학생 정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을 위한 ▲단과대학형

▲학부형 ▲학과형 ▲공동참여형(컨소시엄) 등의 평생교육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성인학습자를 전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운영 형태별 1년 지원예산은 단과대학형은 12억원 이내, 학부형은 6억원 이내, 학과형은 3억원 이내, 컨소시엄은 12억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대의 경우 학부(계열)형 10억원 이내, 학과형 4억원 이내, 컨소시엄 12억원 이내다.

◆성인학습자 정원 대학 자율, 교육과정은 지역산업과 연계해야

학생 정원은 정원 내 또는 정원 외로 구성할 수 있고, 특히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의 성인학습 수요와 지역산업체 인력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해야 하고, 수업 방식은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

연한 상한 폐지, 시간제 등록제와 재직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따른 성인학습자 학위과정 학습자 모집은 202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실시되고,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진행하게 된다.

일반대학과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을 이수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경우엔 산업체 2년 이상 재직자나, 만 25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사업 대학 선정 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되고 사업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대학과 지원금액이 정해진다.

교육부는 13일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 참여 희망 대학은 4월 2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임창빈 평생미래교육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고 학령기 학생 수 감소와 상반해 나타나는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학습 수요도 갈수록 증대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인사담당자 27% “고졸채용 전망 흐림”

잡코리아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 공기업·공공기관 68% “고졸 채용”

올해 국내 기업의 고졸 채용 경기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잡코리아가 국내기업 인사담당자 318명에게 ‘2019년 고졸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졸 채용 경기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답변이 60.4%로 가장 많은 가운데, ‘작년보다 나빠질 것’(26.7%)이란 전망이 ‘작년보다 좋아질 것’(12.9%)이란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고졸 채용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대졸, 대학원졸 등 채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아서’(50.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력 감원을 계획 중이어서’(48.2%), ‘올해 전체 채용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36.5%) 등의 이유가 나왔다.

실제로 올해 고졸 직원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5%

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이 68.6%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58.7%)도 절반 이상이 고졸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반면, ‘고졸 채용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4곳 중 1곳(25.8%)이었고, ‘아직 일정이 미정’인 곳은 27.7%였다. 고졸 채용이 확정됐다고 답한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 시기를 묻은 결과, ‘상반기’(37.2%)와 ‘상·하반기 둘 다 진행’(25.0%)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실제로 올해 고졸 직원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5%

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이 68.6%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58.7%)도 절반 이상이 고졸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반면, ‘고졸 채용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4곳 중 1곳(25.8%)이었고, ‘아직 일정이 미정’인 곳은 27.7%였다. 고졸 채용이 확정됐다고 답한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 시기를 묻은 결과, ‘상반기’(37.2%)와 ‘상·하반기 둘 다 진행’(25.0%)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한용수 기자

사람인 ‘나한테 적합한 직무는?’ 무료 적성검사서비스 론칭

사람인은 구직자의 효과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적성검사 서비스를 론칭해 무료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람인 적성검사 서비스는 본인 적성 파악은 물론,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와 공고를 추천해 구직활동 편의성을 높인게 특징이다. 검사 후 바로 언어, 수리, 추리, 공간의 4가지 분야별 적성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줘 개인의 감정과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준다. 또 응시자의 적성에 맞는 추천 직무와 해당 직무 채용 공고까지 원스톱으로 보여줘 구직활동을 돕는다. 사람인 개인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업계 최초로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응시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인의 임태경 팀장은 “적성검사는 이미 우수 기업에서 지원자 직무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채용 툴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사람인 적성검사는 평가에 필요한 문항은 최소화하고, 쉽고 변별력 높은 문항 유형을 개발해 검사의 편의성과 변별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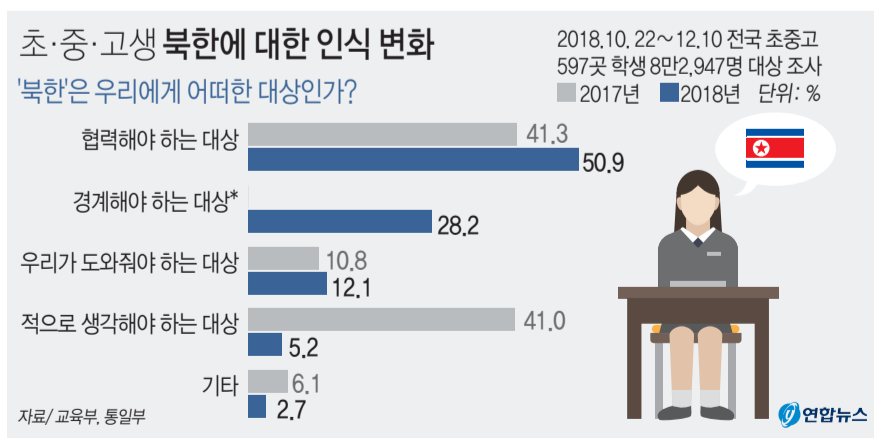
이번 서비스 개발에는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인적성 검사를 개발한 심리평가 권위자 이종구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도 참여했다.

사람인은 적성검사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내달 12일까지 적성검사에 응시하면 자동 응모되는 오픈 이벤트를 열고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맥북 에어(1명) ▲에어팟(4명) ▲스타벅스 기프티콘(50명) ▲카카오 이모티콘(945명)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한용수 기자

교육부, 통일교육 실태조사 ‘북한 부정적 이미지’ 크게 줄어

초·중·고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불과 1년 만에 크게 감소하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올해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 등 화해무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22일~12월 10일까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97개교 8만 7113명의 학생과 교사 대상 ‘2018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2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전쟁·군사’ 또는 ‘독재·인물’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56.4%로 전년과 비교해 17.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한민족통일’이란 응답 비율은 24.9%로 전년 대비 16.3%포인트 증가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답변이 늘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63.0%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13.7%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한용수 기자